

현장이 초기에 역경한 유가행과 문헌들에 대한 대조 연구

A Contrast Study Regarding the Literatures of the Yogācāra-School Regarding Which the Scriptures had been Translated by Hyeon-Jang in the Beginning

최종남 (Choi, Jong-Nam)*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6 「瑜伽論」에 추가된 문장
2. 현장의 역경 방법	2.7 「顯揚論」에 추가된 문장
2.1 음사표기를 의역용어로 혹은 의역 용어를 음사표기로 변환	2.8 「顯揚論」의 축역
2.2 빨리어 음사표기를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로 변환	2.9 否定語에 대한 역경
2.3 구역용어를 신역용어로 변환	2.10 ‘於’조사에 대한 역경
2.4 문장의 구조 변화	2.11 ‘爲’에 대한 역경
2.5 「顯揚論」에 생략된 문장	3. 나가는 말
	<참고문헌>

< 초 록 >

현장은 629년 8월부터 645년 1월 7일까지 17년간 인도에서 구법여행을 하였다. 현장은 장안에 도착한 후 역경하고자 하는 소원(願以所聞歸還翻譯)과 太宗의 칙명에 의해 3월 1일 장안 흥복사에 翻經院을 개원하고, 5월부터 흥복사를 비롯하여 10여 곳의 사찰에서 664년 1월까지 20년 동안 75부 1335권을 역경하였다. 현장이 역경한 불전들은 부파불전들과 대승의 화엄·중관·유식 등의 다양한 시대별·학과별·사상별의 불전들을 역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이 역경한 75부 1335권 중에서 역경초기의 불전들이며, 동일인이 역경하였으며, 그리고 유가행과를 대표하는 초기문헌인 「顯揚論」과 「瑜伽論」을 문헌학적으로 대조·고찰하였다. 두 논서를 연구하고자 함은 두 논서를 현장이 역경하였으며 「顯揚論」의 내용은 「瑜伽論」의 내용을 재조직한 문헌이므로 현장의 역경방법(譯風)과 초기의 역경문헌들, 즉 645년에 역경한 문헌(「顯揚論」)과 646년에 역경한 문헌(「瑜伽論」)의 차이점과 전개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음사표기, 의역용어, 문장의 구조변화·생략·추가·축역, 그리고 부정어, ‘於’조사, ‘爲’의 조사·동사로서의 역경들에 대해서 문헌학적으로 대조·분석하였다. 현장은 「顯揚論」의 역경과정에서 구역의 음사표기·빨리어 음사표기·의역용어들을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瑜伽論」의 역경과정에서는 신역 의역용어로, 음사표기를 의역용어로, 빨리어 음사표기를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로, 합역들로 각각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내용·문법의 예들을 대조하면 「顯揚論」에서는 문장의 구조변화, 생략, 축역들이 현저하다. 그러나 「瑜伽論」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대조하면 원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質 중심의 역경, 그리고 현장이 정착단계에 든 신역의 역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45년에 역경한 「顯揚論」은 신역의 역경방법을 준비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試譯의 역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要語: 현장, 역경,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 현양론, 유가론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acaryachoi@hanmail.net)

투고일: 2020년 5월 18일 최초심사일: 2020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8일

서지학연구, 제82집, 55-73,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55>

<ABSTRACT>

Hyeon-Jang had gone on a Buddhism seeking travel in India for 17 years from August 629 until January 7, 645. Regarding Hyeon-Jang, after arriving in Jagan, because of the wish to translate the scriptures and the royal order of the Emperor The-Jong, Hyeon-Jang opened a translation institute at the Hongbok Temple in Jagan on March 1. And, from May, at the Buddhist temples at over 10 places, including the Hongbok Temple, he had translated the scriptures of 1335 volumes of 75 parts during 20 years until January 664. Regarding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had been translated by Hyeon-Jang,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and the diverse Buddhist scriptures by the era, the school, and the thought of Hwaeom, Junggwon, Yusig, etc. of Mahayana had been translated.

In this thesis, among the 1335 volumes of the 75 parts regarding which the scriptures had been translated by Hyeon-Jang, the *Hyeonyangron* and the *Yugaron*, which are the Buddhist scriptur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lations, which are the scriptures that had been translated by the same person, and which are the early literatures that represent the Yogācāra, had been contrasted and considered philologically. Regarding the reasons why it is intended to study the two treatises, Hyeon-Jang had translated the two treatises, and, as the content of the *Hyeonyangron* is the literature that had reorganized the content of *Yugaron*, they have the important values as the materials with regard to understanding the points of the differences and the processes of the unfolding of the scripture translating method of Hyeon-Jang, the scripture translated literatures in the initial phase, or, in other words, the literatures (The *Hyeonyangron*) regarding which the scriptures had been translated in the year 645, and the literatures (The *Yugaron*) regarding which the scriptures had been translated in the year 646.

In this thesis, regarding some of the phonetic marks, the liberally translated terms, the changes, the omissions, the additions, and the reduced translations of the structures of the sentences, and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as the negatives, the particles in the classical Chinese, the prepositions and the verbs of doing that have been used in the two treatises, they had been contrasted and analyzed philologically. In the processes of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of the *Hyeonyangron*, Hyeon-Jang had used the phonetic marks of the zones, the phonetic marks of the Pāli language, and the liberally translated terms in a lot of the parts just the way they were. However, in the processes of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of *Yugaron*, the newly translated terms were converted into, and used as, the liberally translated terms, the phonetic marks were converted into, and used as, the liberally translated terms, and the phonetic marks of the Pāli language were converted into, and used as, the phonetic marks of the Sanskrit language and the joint translations.

And, if the examples of the structures, the contents, and the grammar of the sentences are compared, in the *Hyeonyangron*, the structural changes, the omissions, and the reduced translations of the sentences are marked. However, in *Yugaron*, if they are compared to the original texts in the Sanskrit language, we can know that they are the scriptures that are centered on the quality that coincide with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s and that they are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of the new translations with which Hyeon-Jang entered the settlement phase. As a result, we can know that the *Hyeonyangron*, regarding which the scriptures had been translated in the year 645, has the scriptures that had been translated as the test translations for preparing a method for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that are the new translations and for the systematization.

Key words: Hyeon-Jang, Translation, Sanskrit, Phonetic marks, *Hyeonyangron*, *Yugaron*

1.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불전들은 2세기 후반인 後漢시대부터 隋·唐시대까지 약 700여 년에 걸쳐 역경되었다. 중국에서의 역경은 중국인들이 불교사상과 원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의 安息國, 大月支國, 康居國, 龜茲國, 于闐國 등의 승려와 우바새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중앙아시아 스님들은 산스크리트어(梵語)와 중앙아시아어(胡語)로 역경된 불전들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 역경을 하였다. 『出三藏記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① 『出三藏記集』 <成實論記第五 出論後記>. “구마라집이 손에 범본을 들고 자신이 입으로 번역(傳譯)하면 담서가 받아 적었다.”¹⁾
- ② 『出三藏記集』 <竺法護傳第七>. “맑은 호본(胡本)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왔다. 돈황에서 장안까지 연로에서 번역하여 진문(/한문)으로 옮겨 적었다.”²⁾

중국에서 불전이 역경된 700여 년간의 역경의 기간을 분기하면 古譯·旧譯·新譯으로 대별된다. 고역시대는 鳩摩羅什(Kumārajīva) 이전의 시대로서 安世高, 支婁迦讖, 嚴佛調(중국의 최초 역경승), 安玄(우바새), 康僧會, 支謙(우바새), 竺法護 등에 의해 시작된 역경 시기를, 구역시대는 구마라집, 眞諦(Paramārtha)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그리고 신역시대는 玄奘과 不空(Amoghavajra)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각각 지칭한다. 이 역경자들 중에서 안세고·지루가참·지겸·축법호를 고역시대를 대표하는 4대 역경자로, 그리고 구마라집·진제·현장·불공을 구역과 신역시대를 대표하는 4대 역경자로 칭하고 있다.³⁾

구역과 신역시대를 대표하는 4대 역경자들이 역경한 불전들은 구마라집(344-413, 혹은 350-409) 35부 294권,⁴⁾ 진제(499-569) 64부 278권,⁵⁾ 현장(602-664) 75부 1335권,⁶⁾ 그리고 불공(705-774)

1) 大正藏55, 78上9-10. “拘摩羅耆婆。手執梵本口自傳譯。曇曇筆受。” 船山澈, 『佛典はどう漢譯されたのか』(東京: 岩波全書, 2013), 96 참조. 『高僧傳』, 大正藏50, 345下12-15. “其後鳩摩羅什。碩學鉤深神鑿奧遠。歷遊中土備悉方言。復恨支竺所譯文製古質未盡善美。迺更臨梵本重爲宣譯。故致今古二經言殊義一。”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第2卷(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209 참조.

2) 大正藏55, 97下29-98上1. “大齋胡本。還歸中夏。自燉煌至長安。沿路傳譯。寫以晉文…”

3) 金岡照光, 『佛教漢文の讀み方』(東京: 春秋社, 1978), 2.; 鎌田茂雄, 『中國佛教史』(東京: 岩波全書, 1979), 233.;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第1卷(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209.; 水野弘元 著, 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서울: 시공사, 1996), 97.; 船山澈, “佛典漢譯史要略,” 『佛教の東伝と受容』 卷6(東京: 佼成出版社, 2010), 236-237.; 최중남 외, 『역경학개론』(서울: 운주사, 2011), 130.; 최중남, 『역경학개론 자료집』(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9), 38 참조.

4) 『出三藏記集』, 大正藏55, 11上25-27. “右三十五部。凡二百九十四卷。晉安帝時。天竺沙門鳩摩羅什。以僞秦姚興弘始三年至長安。於大寺及逍遙園譯出。” 『開元釋教錄』에는 74부 384권(大正藏55, 515下5-7. “右七十四部三百八十四卷…沙門鳩摩羅什。秦言童壽…”), 『歷代三寶紀』에는 97부 425권(大正藏49, 79上9-11. “右九十七部合有四百二十五卷。晉安帝時。天竺國三藏法師鳩摩羅什婆。秦言童壽。弘始三年冬到常安。”)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5) 『續高僧傳』, 大正藏50, 430中20-21. “所出經論記傳。六十四部。合二百七十八卷。” 『歷代三寶紀』, 大正藏49,

110부 143권⁷⁾이다.

중국에서 역경된 원전들은 산스크리트어 불전들로서 초기·부과·대승불전들뿐만 아니라 율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⁸⁾

현장은 13세(大業11, 615년)에 출가하여 沙彌가 되고,⁹⁾ 成都에서 만 20세(武德5, 622년)에 具足戒를 수지하였다.¹⁰⁾ 현장은 사미 때에는 부과·대승의 경론들인 『涅槃經』, 『攝大乘論』, 『阿毘曇』, 『法華經』 등과 外典으로서 『書傳』¹¹⁾ 등을 중심으로 수학을 하였으며,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에는 만 리 떨어진 곳까지 선덕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접하지 못한 『成實論』, 『俱舍論』 등을 수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이와 같이 많은 스승들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지만 스승들이 제각기 宗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聖典에 대한 해석의 오류들이 있어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여겨¹²⁾ 27세인 貞觀3年(629) 8월¹³⁾에 이와 같은 의혹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유가행과의 초기문헌인 『十七地論』의 『瑜伽師地論』(彌勒(Maitreya), 『Yogācārabhūmi』), 이하 『瑜伽論』을 구하기 위하여 西方(=인도)에 가게 되었다.¹⁴⁾

현장은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인도를 탐방하면서 많은 논사들로부터 초기·부과·대승과 여러

88上23-25. “右四十八部合二百三十二卷。周武帝世。西天竺優禪尼國三藏法師拘那羅陀。陳言親依。又別云真諦。”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46上14-17. “右三十八部一百一十八卷 … 沙門拘羅那他。陳曰親依。或云波羅未陀。此云真諦。”

- 6)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77上1-2. “合七十四部。總一千三百三十五卷。” 『續高僧傳』에는 73부 1330권(大正藏50, 458上22-23. “總有七十三部一千三百三十卷。”). 『開元釋教錄』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① 76부 1347권(大正藏55, 557中13-15. “右七十六部一千三百四十七卷其本並在。沙門釋玄奘。本名禪。俗姓陳氏。陳留人也。”), ② 75부 1335권(大正藏55, 560下19-20. “總出大小乘經律論等合七十五部一千三百三十五卷.”)으로 기록하고 있다.
- 7) 『貞元新定釋教目錄』, 大正藏55, 881上8-12. “右一百一十部一百四十三卷其本見在大唐特進試鴻臚卿加開府儀同三司封肅國公贈司空諡大辯正大廣智不空三藏和上者。南天竺執師子國人也。法諱智藏。號不空金剛。”
- 8) 『大唐內典錄』, 大正藏55, 250中10-12. “以建元初至長安。誦四阿含梵本口授。竺佛念寫爲梵文。到二十年爲符主譯。” 『大唐內典錄』, 大正藏55, 521中11-15. “得毘婆沙梵本十有萬偈。還至姑臧。側席虛襟企待明匠。聞跋摩遊心此論。請爲翻譯。時蒙遜已薨。子茂虔襲位。以虔承和五年丁丑四月中旬。於涼州城內閑豫宮寺。請跋摩譯焉。泰即筆受。” 『大唐內典錄』, 大正藏55, 252中15. “誦出十誦律梵本。”
- 9)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21下28. “時年十三也。” 『開元釋教錄』에서는 11세 출가(大正藏55, 559中27-28. “年十一誦維摩法華。東都恒度便預其次。”)로, 『大唐故三藏玄奘法師行狀』에서는 15세 출가(大正藏50, 214上24-25. “芳聲從茲發爽時年十五也.”)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 10)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22中4-5. “法師年滿二十。即以武德五年。於成都受具 ….”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57下13-14. “年滿二十。即以武德五年於成都受具。” 『續高僧傳』에서는 武德5年을 현장의 21세로 기록하고 있다(大正藏50, 447上14. “武德五年。二十有一爲諸學府.”).
- 1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22上25-26. “凡講涅槃經攝大乘論阿毘曇。兼通書傳 ….”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59中27-28. “年十一誦維摩法華。”
- 12)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14下4-8.
- 13)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14下19-20. “貞觀三年。將欲首塗。又求祥應。乃夜夢見大海中。” 『續高僧傳』, 大正藏50, 447中25. “會貞觀三年時遭霜儉 ….” 『廣弘明集』에서는 현장이 貞觀元年(627)에 인도에 출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大正藏52, 258上10. “沙門玄奘言。奘以貞觀元年。往遊西域.”).
- 14)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14下8-10. “乃誓遊西方。以問所惑。辨取十七地論等。以釋衆疑。即今之瑜伽師地論也。”

학과들의 견해 및 인도사상 등에 대해서 수학하고, 불전들을 수집하였으며, 붓다와 논사들의 성지 및 불전들을 편찬한 지역을 참배하였다. 현장은 『大唐西域記』(辨機撰)에 의하면 구법승으로서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17년 동안 110개국을 탐방하였고,¹⁵⁾ 언급된 나라는 138여 개 국이다.

현장은 인도에서의 구법 여행을 마치고 정관19년(645) 1월 7일¹⁶⁾에 西京(=長安)에 도착하였다. 현장은 장안에 도착한 이후 太宗(598-649)의 勅命과 재정적 도움으로¹⁷⁾ 3월 1일에 장안 弘福寺에 翻經院¹⁸⁾을 개원하고, 그리고 24명의 역경승들¹⁹⁾과 함께 5월 2일부터 麟德元年(664) 1월 1일까지 약 20년간 역경을 하였다. 현장이 역경한 譯經場들로서는 흥복사를 비롯하여 玉華寺(/宮), 弘法院, 翠微宮, 積翠宮, 大慈恩寺, 西明寺 등의 翻經院이다.²⁰⁾ 역경한 불전들은 부과 및 대승의 華嚴·中觀·唯識·因明·密教·淨土 등의 다양한 시대별·학과별·사상별의 불전들이다.

현장의 역경은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이하 『자은전』)에서 태종이 현장의 역경에 대해서 “大慈恩寺 승려 현장이 번역한 經論은 새로 번역한 것으로 文義가 매우 정밀하다.”²¹⁾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은전』 卷第十에서는 『대반야경』의 역경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법사는 서역에서 3가지 원본을 얻어 왔으므로 번역하는 날 글에 의심이 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 3가지 원본을 비교해서 그것을 바로잡되 신중히 성찰하고 나서 번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는 그 마음은 고래로 비할 바가 아니다.”²²⁾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선행연구들에서도 현장의 역경에 대해서 原文에 충실하고 정확한 역경이며, 술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文·質 중에서 質 중심의 역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³⁾

이 외에도 현장은 역경과정에서 구역의 팔리(Pali, P)어 음사표기를 산스크리트(Sanskrit, S)어 음사

15) 『大唐西域記』, 大正藏51, 868下1-947下1.

16)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52中14. “貞觀十九年春正月景子.”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58下28-29. “以貞觀十九年正月二十四日屆于京郊之西.”

17)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53下6-9. “帝曰. 不須在山. 師西方去後. 朕奉爲穆太后於西京造弘福寺. 寺有禪院甚虛靜. 法師可就翻譯.”

18)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53下15-16. “三月己巳法師自洛陽還至長安. 卽居弘福寺將事翻譯.” 『廣弘明集』에서는 2월 6일부터 역경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大正藏52, 259中9-10. “以貞觀十九年二月六日. 奉勅於弘福寺翻譯聖教要文.”).

19) 역경승들의 역할로서는 證義(=詳證大義, 역어의 고증)·綴文(=受旨證文, 문체의 고증)·筆受(구술 필기)·書手(淨書者)·字學(=正字, 음사표기 고증)·證梵語梵文(=證梵語, 證梵文, 범어 원문과 한어가 일치하는가를 고증), 度語(=譯語, 傳語, 범어원전을 한어로 전하는 역), 刊定(필요 없는 문장을 삭제 및 언어를 순조롭고 정확하게 하는 역), 監閱者(=監護大使, 총 교열담당자)들이다.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53下19-254上5. 『유가론』을 역경함에 있어서는 21명의 스님들이 참여하였음(大正藏30, 283下3-29). 이재창, 『불교경전의 이해』(서울: 경학사, 1998), 53 참조.

20)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55中28-557中14. 桑山正進·袴谷憲昭 共著, 『玄奘』(東京: 大藏出版, 1981), 252-258. ; 師茂樹, 『大乘五蘊論』(東京: 春秋社, 2015), 16-17 참조.

2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66中6-7. “大慈恩寺僧玄奘. 所翻經論. 旣新翻譯. 文義須精.”

22)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276上12-14. “然法師於西域得三本. 到此翻譯之日. 文有疑錯. 卽按三本以定之. 慙慙省覆. 方乃著文. 審慎之心古來無比.”

23) 水野弘元 著, 이미령 옮김(1996), 165. ; 桑山正進·袴谷憲昭 共著(1981), 300-305 참조.

표기로, 음사표기를 습譯, 혹은 意譯(世尊, bhagavat)으로, 그리고 사상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역을 음사 표기 등으로 각각 역경을 시도하였다. 가령 빨리어 음사표기 比丘(Ṭbhikkhu)를 산스크리트어 음사 표기 苾芻(Ṭbhikṣu)로 하고, 합역으로 舍利子(sāriputra), 無上正等菩提(anuttarasamyaksambodhi)로 하거나, 의역으로서 世尊(bhagavat)으로 역경하였다. 그리고 사상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역의 止觀을 음사표기 奢摩他毘鉢舍那(samathavipaśyanā)로, 意를 末那識(manas) 등으로 각각 역경하였다. 그렇지만 현장은 20여 년간 이들 신역용어와 신역 음사표기만을 고집하여 사용하지 않고 횡수는 적지만 구역용어와 구역 음사표기들을 병행(薄伽梵·世尊, 無上正等菩提·無上正等覺·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면서 역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이 역경한 불전들은 75부 1335권이다. 이들 불전들 중에서 초기 역경시기인 645년 5월부터 649년 6월 17일까지 4년간에 걸쳐 역경한 불전들은 18부 193권이다. 이들 중에서 87%인 11부 168권은 유가행과의 초기 문헌들이다.²⁴⁾

본 논문에서는 현장의 역경시대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 즉 시작과 정착과정에서 진행된 초기 역경시대의 불전들 중에서 유가행과를 대표하는 『顯揚論』(無着(Asaṅga), 『*Āryadeśanāvīkhyāpanaśāstra』,²⁵⁾ 645년 10월 1일-646년 1월 15일)과 『顯揚論』을 역경한 후 4개월 후인 646년 5월 15일부터 648년 5월 15일까지 2년에 걸쳐 역경한 『瑜伽論』의 일부 내용을 대조·고찰하고자 한다.

『顯揚論』은 『瑜伽論』의 5分17地로 구성된 100권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재조직하여 11품·20권으로 구성한 유가행과의 초기문헌이다.²⁶⁾ 무착은 『瑜伽論』의 각 품에서 내용에 따라 부분 부분 아니면 『顯揚論』 권10과 같이 『瑜伽論』 권7에서 진 내용을 인용하여 논서를 조직하고 있다. 무착은 또한 『瑜伽論』에서 인용하면서 『顯揚論』의 내용과 구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두 논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그리고 역경자가 동일인이므로 645년과 646년에 각각 시기적으로 어떠한 역경방법(譯風)으로 역경이 전개되었는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교정본)이 현존하는 『瑜伽論』 5地 중의 <聲聞地>(Śrāvakabhūmi)와 『顯揚論』²⁷⁾의 20권 중에서 내용이 상응한 권7을 중심으로 문헌학적으로 대조·고찰을 하고자 한다.

24) 『顯揚論頌』(645년 6월 10일), 『顯揚論』(645년 10월 1일-646년 1월 15일), 『大乘阿毘達磨雜集論』(646년 1월 17일-3월 29일), 『大乘五蘊論』(647년 2월 24일), 『攝大乘論釋』(647년 3월 1일-649년 6월 17일), 『瑜伽論』(646년 5월 15일-648년 5월 15일), 『解深密經』(647년 5월 18일-7월 13일), 『唯識三十論頌』(648년 5월 29일), 『大乘百法明門論』(648년 11월 17일), 『攝大乘論釋』(648년 12월 8일-649년 6월 17일), 『攝大乘論本』(648년 12월 26일-649년 6월 17일). 『開元釋教錄』, 大正藏55, 555中28-557中14, 桑山正進·袴谷憲昭 共著(1981), 252-254 참조.

25) 論名에 대해서는 최종남의 “『顯揚聖教論』에 대한 再考察,” 『인도철학』 제3집(1993. 4), 209 참조.

26) 최종남(1993), 206. ; 최종남(1999), 236 참조.

27) 『顯揚論』의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벳어 역경본은 현존하지 않다.

2. 현장의 역경 방법

2.1 음사표기를 의역용어로 혹은 의역용어를 음사표기로 변환

법운(法雲, 1088-1158)은 『翻譯名義集』에서 현장이 5가지 음사표기를 의역하지 않았다(五種不翻), 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⁸⁾ 이들 오종불변은 陀羅尼(dhāraṇī), 薄伽梵(bhagavat), 閻浮樹(jambu), 阿耨菩提(anuttarabodhi), 般若(prajñā)로서 의역하지 않은 이유는 다라니는 비밀스러운 어휘이므로, 바가범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으므로, 염부수는 중국에 없는 나무이므로, 아록보리는 攝摩騰부터 음사표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반야는 반야라고 하면 존중하고, 지혜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므로,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오종불변이 오종불변이 아닌 구역 음사표기(薄伽梵, 阿耨菩提)·합역(無上正等菩提)·의역(世尊, 無上正等覺)으로 병행하여 역경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구역 음사표기를 합역으로, 구역 음사표기를 의역으로, 의역을 음사표기 등으로 각각 표기하여 역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예들과 같이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사표기가 어떻게 의역용어로 표기하고, 그리고 의역용어가 어떻게 음사표기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은 음사표기와 의역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顯揚論』에서는 구역 음사표기인 尸羅(sīla)와 薄伽梵(bhagavat), 鄔波陀耶(upādhyāya), 阿遮利耶(ācārya), 三摩地(samādhi)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瑜伽論』에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戒, 世尊, 親教師, 軌範師, 定으로 각각 의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尸羅와 戒, 薄伽梵과 世尊은 두 논서에서 병행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顯揚論』에서는 구역의 의역용어인 止, 觀, 修(/行²⁹⁾/定³⁰⁾) 등을 사용하는 반면 『瑜伽論』에서는 한자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 때문에 곡해할 것을 우려하여 음사표기인 奢摩他(samatha), 毘鉢舍那(vipaśyanā), 瑜伽(yoga)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역의 음사표기인 [僧]伽藍(ārāma), 毘奈耶(vinaya), 沙門(śrāmaṇa) 등은 두 논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2 팔리어 음사표기를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로 변환

현장은 대표적으로 『顯揚論』에서는 구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팔리어 음사표기인 比丘(尼)(bhikkhu(nī))

28) 『翻譯名義集』, 大正藏54, 1055上13-18. “唐奘法師論五種不翻。一祕密故。如陀羅尼。二含多義故。如薄伽梵具六義。三此無故。如閻浮樹(=浮樹)。中夏實無此木。四順古故。如阿耨菩提。非不可翻。而摩騰以來常存梵音。五生善故。如般若 尊重智慧輕淺。”

29) 大正藏31, 514上5.

30) Karunesha Shukla (ed.), Śrāvakaḥūmi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3), 50. 大正藏30, 404中22-23. 大正藏30, 516中1. Tib. P.25a1. “sbyor ba”

를 주로 사용하고, 『瑜伽論』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를 새롭게 창안하여 苾芻(尼)(bhikṣu(ṇi))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기들 또한 두 논서에서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2.3 구역용어를 신역용어로 변환

『顯揚論』에서는 구역용어들인 住(viharati), 方便(prayoga), 具足(sampanna), 安息(pratiprasrabdhi), 正勤(vīrya), 悔心(kaukr̥tya), 法爾(dharmatā), 觀如實(yathābhūtaṃ jānaṃ paśyaṃ), 犯(vipatti)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瑜伽論』에서는 이들을 변환하여 安住, 加行, 圓滿, 止息, 精進, 惡作, 法性, 如實知見, 虧損으로 각각 역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 또한 두 논서에서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무착은 또한 『瑜伽論』에서 인용하면서 『顯揚論』의 내용과 구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4 문장의 구조 변화

현장은 유가행과의 초기, 이른바 원시유식기(미륵, 무착)에 저술된 사상들을 종합하여 五言絕句에 의해 30개 계송(600字)으로 구성된 문헌인 『唯識三十論頌』(『Triṃśikā Vijñaptimātrātāsiddhi』, 貞觀22年 5月 29日)을 648년에 역경하는 과정에서 사상적인 전개, 중국어 어순에 맞게 단어의 추가와 생략,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전에 없는 心所法(caitasiko dharmah)의 추가 등으로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것은 의도적으로서 원전에 대한 학과의 사상적 이해를 돕고자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대표적인 예로서 현장은 『瑜伽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行迹差別’(pratipatprabheda)의 4종류에 대해서 『顯揚論』에서는 문장의 구조 변화 및 축소를 하여 4종류 중에서 첫 번째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외의 3종류는 『顯揚論』에는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顯揚論』에서는 첫 번째 내용을 ‘行’과 ‘方便’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내용을 ‘上中下’로 재구성하여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전혀 다르게 역경을 전개하고 있다.³¹⁾

31) ŚrBh.(Sh.), 190. “kathaṃ pratipatprabhedena pudgalavyavasthānaṃ bhavati/ eṣāṃ yathoddiṣṭānāṃ yathāparikīrtitānāṃ pudgalānaṃ catasṛbhiḥ pratipadbhir niryānaṃ bhavati/ katamābhiḥ catasṛbhiḥ</> asti pratipad duḥkhā dhandhābhijñā, <asti pratipad duḥkhā kṣiprābhijñā,> asti pratipad sukhā dhandhābhijñā, asti pratipad sukhā kṣiprābhijñā/ tatra mṛdvindriyasya pudgalasya mauladhyān<ā> lābhino yā pratipad<,> iyam ucyate duḥkhā dhandhābhijñā/ tatra tikṣṇendriyasya pudgalasya mauladhyān<ā> lābhino yā pratipad<,> iyam ucyate duḥkhā kṣiprābhijñā/ tatra mṛdvindriyasya pudgalasya mauladhyānalābhino yā pratipad<,> iyam ucyate sukhā dhandhābhijñā/ tatra tikṣṇendriyasya pudgalasya mauladhyānalābhino yā pratipad<,> iyam ucyate sukhā kṣiprābhijñā/ evaṃ pratipatprabhedena pudgalavyavasthānaṃ veditavyaṃ/”. Choi, Jong-Nam, *Die dreifache Schulung(Sikṣā) im frühen Yogācāra*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1), 162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26中2-13. “云何由行迹差別建立補

2.5 「顯揚論」에 생략된 문장

「顯揚論」의 역경과정에서 생략된 일부 문장들이 「瑜伽論」의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한역본, 그리고 티벳어 역경본에 있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2.5.1 「瑜伽論」에서는 三學修行의 次第에 대해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問·答”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顯揚論」에서 “問”의 문장과 본 주제에 대한 설명의 끝부분을 전부 생략하였다.³²⁾

2.5.2 「瑜伽論」에서는 청정한 戒律儀(sīlasaṃvara)를 갖추게 되면 10가지의 수승한 공덕과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공덕 중에서 첫 번째의 ‘수승한 공덕과 이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顯揚論」에서 서두 부분만 역경하고 중간부분과 끝부분은 생략하였다.³³⁾

2.6 「瑜伽論」에 추가된 문장

2.6.1 현장이 650년(永徽元年 1月 1日)에 역경한 「稱讚淨土佛攝受經」(No.367)을 산스크리트어 원전인 「Sukhāvativyūha」와 鳩摩羅什이 역경한 「佛說阿彌陀經」(No.366)을 서로 대조하면 현장은 「칭찬정토불섭수경」을 역경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는 각 단원의 내용들 중에 다량의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에서는 주석적 의미의 내용을 갖는 문장들을

特伽羅。謂如所學如所開示補特伽羅。依四行迹而得出離。何等爲四。謂或有行迹是苦遲通。或有行迹是苦速通。或有行迹是樂遲通。或有行迹是樂速通。當知此中若鈍根性補特伽羅。未得根本靜慮。所有行迹。名苦遲通。若利根性補特伽羅。未得根本靜慮。所有行迹名苦速通。若鈍根性補特伽羅。已得根本靜慮所有行迹名樂遲通。若利根性補特伽羅。已得根本靜慮。所有行迹名樂速通。如是名爲由行迹差別建立補特伽羅。”「顯揚論」, 大正藏 31, 513c19-24. “下中上品分別者。謂由行故。及方便故。由行故者。謂苦遲通行名下品學。苦速通行及樂遲通行名中品學。樂速通行名上品學。由方便故者。不殷重方便及不無間方便修者。名下品學。隨一方便修者。名中品學。具二方便修者。名上品學。”

32) ŚrBh.(Sh.), 263. “kā punar āsāṃ śikṣāṇāṃ ānupūrvī</> (<…> <’>nupādāya parinirvāti/ evam imāni śīlāni bhāvitāni agratāyām upanayanti, yadutānupāya parinirvāṇaṃ/ iyaṃ āsāṃ śikṣāṇāṃ ānupūrvī</>”. Choi, Jong-Nam(2001), 157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36上17-24. “問何緣三學如是次第。答 (<…>) 證無所作究竟涅槃。如是最初修習淨戒。漸次進趣後證無作究竟涅槃。是故三學如是次第。”

33) ŚrBh.(Sh.), 447. “tatraivaṃ parīsuddhasya śīlasaṃvarasya daśānuśaṃsā veditavyā<ḥ>/ katame daśa/ iha śīlavā puruṣapudgalaḥ śīlaviśuddhim ātmanaḥ pratyavekṣamāṇaḥ (<…>) yāvan nirupadhiśeṣe nirvāṇadhātau parinirvāti/ yac chilavān puruṣapudgalaḥ śīlaviśuddhyadhīpatēyam avipratīṣāraṃ pratilabhate anupūrveṇa yāvan nirvāṇagamanāya<, > ayaṃ prathamāḥ śīlānuśaṃsaḥ//”. Choi, Jong-Nam(2001), 174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05上12-22. “如是清淨尸羅律儀。應知有十功德勝利。何等爲十。謂諸所有具戒士夫補特伽羅。自觀 (<…>) 乃至我能於無餘依般涅槃界當般涅槃。如是所有具戒士夫補特伽羅。尸羅清淨增上力故獲得無悔。漸次乃至能到涅槃。是名第一尸羅律儀功德勝利。”

또한 추가하고 있다.³⁴⁾

그러나 현장은 「瑜伽論」을 역경하는 과정에서는 독자들의 사상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스크리트어 원전, 티벳어 역경본, 「顯揚論」에는 없는 접속사(‘卽’, =eva),³⁵⁾ 부사(‘如是’, =evam),³⁶⁾ 숫자를 들어 언급하는 경우 서두에 전체적인 숫자와 함께 설명을 이끄는 표현(예: ‘何等爲四 …’, =catvāraḥ katame …),³⁷⁾ 그리고 앞·뒤 문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단어(‘如其所受’, =yathāsamādatta)³⁸⁾ 등을 많은 부분에서 추가하였다.

2.6.2 「瑜伽論」의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의문문 문장의 경우 의문부사와 동사인 ‘katham … bhavati’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단어를 모든 한역본에서는 ‘云何名爲 …’로, 티벳어 역경본에서는 ‘ji ltar na … yin ze na’로 각각 역경하였다. 그러나 「顯揚論」에서는 이들을 전부 주격(Nom.)의 의미를 갖는 助詞인 ‘…者’를 사용하여 역경하였다.³⁹⁾

2.7 「顯揚論」에 추가된 문장

현장은 「顯揚論」에서 三學(trīṇi śikṣāni)의 증장을 위해 增上心學(adhicittam śikṣā)과 增上慧學(adhiprajñam śikṣ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瑜伽論」의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한역본, 그리고 티벳어 역경본에는 없는 문장(3行)을 추가하여 역경하고 있다. 현장은 역경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증상심학을 마무리하는 내용, 증상혜학에 대해서 설명을 이끄는 주제, 주어, 증상혜학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없음을 알고 삼학에 대한 전체 내용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전개와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였다.

「顯揚論」. “(增上心學差別分別者。…) 此差別義如前已說。是名增上心學差別分別。增上慧學差別分別者。若比丘 (…) 是名增上慧學差別分別。”⁴⁰⁾

2.8 「顯揚論」의 축역

2.8.1 현장은 「顯揚論」을 역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제가 있는 문장과 내용들에 대해서 접속사인 ‘乃至’, 복수의 뜻을 갖는 ‘等’들을 사용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 및 축소하고 있다. 그 예로서 「瑜伽

34) 최종남 외, 「범본·한역본·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서울: 경서원, 2009) 참조.

35) 大正藏30, 403中21.

36) 大正藏30, 396下2.

37) 大正藏30, 438上16.

38) 大正藏30, 403中15.

39) ŚrBh.(Sh.), 49. 大正藏30, 404中16. Tib. P.24b4. 大正藏31, 516上24.

40) 大正藏31, 513上17-28.

論』〈聲聞地〉의 ‘제4 瑜伽處’(caturtham yogasthānam)에서는 初靜慮(prathama-dhyāna)에 있어서 7종류의 作意(manaskāra)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顯揚論』에서는 본 내용을 인용하면서 7종류를 전부 역경하지 않고 접속사 ‘乃至’를 사용하여 축역하고 있다.⁴¹⁾

그리고 『瑜伽論』〈聲聞地〉에서 ‘墮在二邊’(antadvayapatitam), 즉 “두 가지 치우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의 내용 중에 5가지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주제들이 있다. 그러나 『顯揚論』에는 이들 5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 역경하고, 그 외의 주제는 복수의 뜻을 갖는 ‘等’을 사용하여 축역하고 있다.⁴²⁾

2.8.2 『瑜伽論』에서는 ‘*katham kālam paryeṣate’/‘(云何尋思時),⁴³⁾ 즉 “시간을 생각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顯揚論』에서는 이 내용 중의 시간을 의미하는 ‘nityam nityakālam dhruvam dhruvakālm’/‘(於常常時 於恒恒時’, ‘rtag pa rtag pa’i dus dañ ther zug ther zug gi dus’)⁴⁴⁾를, 즉 4개의 부사(Adv.)를 2개의 부사만으로 축역(‘常恒相續’)⁴⁵⁾하고, 그리고 내용에 맞게 2개의 부사를 생략한 대신 ‘麤’(audārika)의 이어짐을 의미하는 ‘相續’(*prabandha)을 추가하여 역경하고 있다.

2.9 否定語에 대한 역경

산스크리트어에 있어서 부정을 의미하는 표기로서 전체 문장, 혹은 하나의 명사, 또는 하나의 동사를 부정하는 ‘na’, 그리고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로서 ‘a-’(/‘an-’), ‘nir-’가 있다. 이들 부정의 의미를 현장은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서로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無’, ‘不’, ‘非’, ‘離’, ‘未’ 등으로 역경하고 있다. 그 예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9.1 ‘na’의 경우는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5가지 유형으로 역경하고 있다. 이들 유형 중에서 두 논서의 동일한 문장들에 있어서 대부분 같은 표기로서 ‘na’를 ‘不’(①mi..., 혹은 ...ma (yin pa

41) ŚrBh.(Sh.), 58-59. “yathā prathamadhyānasamāpattiḥ saptabhir manaskārair<, > evaṃdvitīyaṭṛtīya-caturtha-dhyānasamāpattiḥ ākāśavijñānākīṃcanyāyatanaanaivasaṃjñānāsaṃjñāyatanasamāpattiḥ saptabhir eva manaskāraiḥ/”. Choi, Jong-Nam(2001), 157-158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67上16-19. “如初靜慮定有七種作意。如是第二第三第四靜慮定。及空無邊處。識無邊處。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定。當知各有七種作意。” 『顯揚論』, 大正藏31, 515中10-12. “如初靜慮有七種作意。如是第二第三第四靜慮乃至非想非非想處定如其所應。盡當知。”

42) ŚrBh.(Sh.), 49. “civarapiṇḍapātaśayanāsanaglānapratyayabhāṣajyaparīṣkāraṇ ...”. Choi, Jong-Nam(2001), 180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04中17-18. “所有衣服飲食臥具病緣醫藥及諸資具。” 『顯揚論』, 大正藏31, 516上25. “衣服等具。”

43) ŚrBh.(Sh.), 442, Choi, Jong-Nam(2001), 169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66上18-19. “云何尋思[諸欲麤]時”. 티벳어 번역: Tib. P.199b8. “ji ltar dus yoñs su tshol bar byed ce na/”(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내용과 같음). 『顯揚論』, 大正藏31, 514下11. “尋思時者”

44) ŚrBh.(Sh.), 442, Choi, Jong-Nam(2001), 169 참조. 『瑜伽論』, 大正藏30, 466上20. 티벳어 번역: Tib. P.200a1.

45) 『顯揚論』, 大正藏31, 514下11.

ste))로,⁴⁶⁾ 그리고 그 외의 통일된 표기로서는 ‘無’(ᄒ…(byuñ bar) mi (‘gyur žiñ…),⁴⁷⁾ 혹은 …med pa⁴⁸⁾와 ‘未’(ᄒ…ma (yin no)⁴⁹⁾로 각각 역경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논서가 서로 다른 표기로서 ‘無’(『顯揚論』)와 ‘不’(『瑜伽論』), 그리고 ‘不’(『顯揚論』)과 ‘非’(『瑜伽論』)로 각각 역경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無’와 ‘不’의 경우는 현장이 산스크리트어 ‘adhyāpadyeya’(Vb. Opt.,⁵⁰⁾ ᄒ…mi (‘gyur ba)⁵¹⁾를 『顯揚論』⁵²⁾에서는 문장의 내용을 변화시켜 명사로 역경하여 ‘無’로, 『瑜伽論』⁵³⁾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내용대로 동사(=티벳어 역경도 동일)로 역경하여 ‘不’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不’과 ‘非’의 경우는 앞의 예와는 달리 현장이 산스크리트어 ‘āpadyate’(Pass. III.Sg.,⁵⁴⁾ ᄒ…mi (‘gyur ba)⁵⁵⁾를 『顯揚論』⁵⁶⁾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내용대로 동사(=티벳어 역경도 동일)로 역경하여 ‘不’로, 『瑜伽論』⁵⁷⁾에서는 문장의 내용을 변화시켜 명사로 역경하여 ‘非’로 표기하고 있다.

2.9.2 부정 접두어 ‘a-’(/‘an-’)의 경우는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11가지 유형으로 역경하고 있다. 이 유형들 중에서 두 논서의 동일한 문장들에 있어서 통일된 표기로서는 ‘非’(ᄒ…ma yin pa),⁵⁸⁾ ‘不’(ᄒ…med pa,⁵⁹⁾ ma…,⁶⁰⁾ …ma yin pa,⁶¹⁾ mi…⁶²⁾, ‘未’(ᄒma…),⁶³⁾ ‘無’(ᄒmi…,⁶⁴⁾ …med pa⁶⁵⁾

46) 최종남(2002), 68-69 참조.

47) 『顯揚論』, 大正藏31, 512下23-24. “則無觀他增上德稱”. 『瑜伽論』, 大正藏30, 403中4-5. “觀他增上所有功德勝利應無”. ŚrBh.(Sh.), 43. “parādhigateyo guṇānuśaṃso na bhaved …”. Tib. P.21b1. “de la ni gzan gyi dbaṅ gis byuñ ba'i yon tan dañ/ rjes su bsnags pa dag 'byuñ bar mi 'gyur žiñ …”

48) 『顯揚論』, 大正藏31, 513中6. “無增上心”. 『瑜伽論』, 大正藏30, 436中9. “無增上心”. ŚrBh.(Sh.), 265. “nādhiccittam”. Tib. P.120b2. “lhag pa'i sems med pa”

49) 『顯揚論』, 大正藏31, 515上27. “我…心未解脫”. 『瑜伽論』, 大正藏30, 466下10-11. “我…其心猶未解脫”. ŚrBh.(Sh.), 444. “na me … vimuktam cittam”. Tib. P.201b2-3. “bdag gi … rnam par grol ba ma yin no”

50) ŚrBh.(Sh.), 6. “nādhyaṅadyeya”

51) Tib. P.23a2. “ltuñ ba 'byuñ bar mi 'gyur ba”

52) 『顯揚論』, 大正藏31, 515下12. “令無所犯”

53) 『瑜伽論』, 大正藏30, 403下27. “終不毀犯”

54) ŚrBh.(Sh.), 46. “na … autsukyam āpadyate”

55) Tib. P.23a3. “(spro ba) … skye bar mi 'gyur ba …”

56) 『顯揚論』, 大正藏31, 515下10. “…不起(樂欲)…”

57) 『瑜伽論』, 大正藏30, 403下24. “非…發起…(樂欲)…”

58) ŚrBh.(Sh.), 46. “asthānakaukrtyaḥ”. 『顯揚論』, 大正藏31, 515下4. “非處生悔”. 『瑜伽論』, 大正藏30, 403下16. “非處惡作”. Tib. P.22b6. “gnas ma yin pa la 'gyod par byed pa na …”. 최종남(2002), 3 참조.

59) ŚrBh.(Sh.), 441. “asvātantryakṛtam”. 『顯揚論』, 大正藏31, 514中24-25. “不自在所作”. 『瑜伽論』, 大正藏30, 466上1. “不自在所作”. Tib. P.199a7. “rañ dbaṅ med pa las byuñ ba”

60) ŚrBh.(Sh.), 449. “aprasāntataravihāritā …”. 『顯揚論』, 大正藏31, 515中15. “極不寂靜住性”. 『瑜伽論』, 大正藏30, 467中16-17. “望上所住不寂靜故”. Tib. P.204b5. “ches rab tu ma ži bar gnas pa”

61) ŚrBh.(Sh.), 44. “anairyaṅika …”. 『顯揚論』, 大正藏31, 515中24. “不能出離”. 『瑜伽論』, 大正藏30, 403下6. “不能出離”. Tib. P.22b1. “ñes par 'byuñ ba ma yin pa”

62) ŚrBh.(Sh.), 50. “ādinavādarśi …”. 『顯揚論』, 大正藏31, 516上25-26. “不見過患”. 『瑜伽論』, 大正藏30, 404中

이다. 이 5가지 부정어의 유형들 중에서 두 논서가 ‘a-’(/‘an-’)를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기는 ‘無’이며, 그 다음으로는 ‘不’, ‘非’, ‘未’의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두 논서가 동일한 문장들에서 서로 다르게 표기한 부정어들은 5가지 유형들로서 ‘無’(『顯揚論』)와 ‘非’(『瑜伽論』), ‘不’(『顯揚論』)과 ‘非’(『瑜伽論』), ‘不’(『顯揚論』)과 ‘未’(『瑜伽論』),⁶⁶⁾ ‘不’(『顯揚論』)과 ‘無’(『瑜伽論』),⁶⁷⁾ ‘無有’(『顯揚論』)와 ‘無’(『瑜伽論』)⁶⁸⁾들이 있다.

이들 유형 중에서 ‘無’와 ‘非’, ‘不’와 ‘非’의 예를 들어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無’와 ‘非’의 경우는 현장이 산스크리트어 ‘a-(brahmacāri)’(m.Sg.Nom.,⁶⁹⁾ ①tshaṅs par spyod pa ma yin pa…⁷⁰⁾를 『顯揚論』에서는 ‘無(梵行)⁷¹⁾로, 『瑜伽論』에서는 ‘(實)非(梵行)⁷²⁾로 역경하였다. 산스크리트어는 ‘非梵行者’(=티벳어 역경도 동일)의 의미로서 이 단어는 ‘無-’가 아닌 ‘非-’, 즉 “범행이 없다.”가 아닌 “범행[자]가 아니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瑜伽論』의 역경이 산스크리트어 단어에 더 적합하다.

‘不’와 ‘非’의 경우는 산스크리트어 ‘a-(dharmeṇa)’(m.Sg.Instr.,⁷³⁾ ①chos ma yin pas…⁷⁴⁾를 『顯揚論』에서는 ‘不(如法)⁷⁵⁾으로, 『瑜伽論』에서는 ‘非(法)⁷⁶⁾으로 역경하였다. 현장은 『顯揚論』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전개에 맞게, 즉 법답게 하는 행위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의 내용 전개에 맞게 의역하여 조사 ‘如’를 추가하고, 그리고 법답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不’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瑜伽論』에서는 산스크리트어 내용과 같이 직역하여 명사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非’(=티벳어 역경도 동일)로 표기하고 있다.

18-19. “不觀過患”. Tib. P.24b6. “ñes dmigs su mi lta la …”

63) ŚrBh.(Sh.), 272. “aprahṇakleśasya …”. 『顯揚論』, 大正藏31, 513中29. “未斷煩惱”. 『瑜伽論』, 大正藏30, 437中7. “煩惱未斷”. Tib. P.123b2. “ñon moṅs pa ma spaṅs pa las …”

64) ŚrBh.(Sh.), 42. “avipraṇāśalakṣaṇaḥ”. 『顯揚論』, 大正藏31, 512下15. “無失壞相”. 『瑜伽論』, 大正藏30, 403上24. “無失壞相”. Tib. P.21a4. “chud mi za ba’i mtshan ñid …”

65) ŚrBh.(Sh.), 14-15. “avitarkam avicāraṃ”. 『顯揚論』, 大正藏31, 513上19. “無尋無伺”. 『瑜伽論』, 大正藏30, 397下5-6. “無尋無伺”. Tib. P.7a8-7b1. “rtog pa med pa dpyod pa med pa”

66) 『顯揚論』, 大正藏31, 513下8. “不知”. 『瑜伽論』, 大正藏30, 437中16. “未知”. ŚrBh.(Sh.), 272. “ajānata”. Tib. P.123b8. “ma śes pa”

67) 『顯揚論』, 大正藏31, 512下11-12. “不增不減”. 『瑜伽論』, 大正藏30, 403上19-20. “無增無減”. ŚrBh.(Sh.), 42. “anyūnam <an>adhikaṃ”. Tib. P.21a2. “lhag chad med par …”

68) 『顯揚論』, 大正藏31, 515下29-a1. “諸根 … 無有掉”. 『瑜伽論』, 大正藏30, 404上19. “諸根無掉”. ŚrBh.(Sh.), 47. “anuddhatendriyatām”. Tib. P.23b5-6. “dbaṅ po rgod ma yin pa ñid …”

69) ŚrBh.(Sh.), 51.

70) Tib. P.25a8.

71) 大正藏31, 516中11.

72) 大正藏30, 404下5.

73) ŚrBh.(Sh.), 49.

74) Tib. P.24b5.

75) 大正藏31, 516上25.

76) 大正藏30, 404中17.

2.9.3 부정 접두어 ‘nir-’의 경우는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3가지 유형으로 역경하고 있다. 이들 유형 중에서 두 논서의 동일한 문장에 있어서 같은 표기로서는 ‘無’(㉠…med pa)⁷⁷⁾이다. 그 외의 2가지 유형은 『顯揚論』과 『瑜伽論』의 같은 한 문단에서 주제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nir-’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예이다. 산스크리트어 ‘nir-(abhimānātā). (S.1(Loc.) S.2(Loc.2) S.3(Loc.) nir-(abhimāno bhavati.)’⁷⁸⁾(㉠(de la) mñon pa’i ña rgyal med pa (gan že na/ rtoḡs pa dañ/ thob pa dañ/ reg pa la). mñon pa’i ña rgyal med (ciñ … pa ste/)⁷⁹⁾를 『顯揚論』에서는 ‘無(增上慢者. 謂於所得所悟所證中.) 離(增上慢…)’⁸⁰⁾으로, 『瑜伽論』에서는 ‘(云何)離(增上慢. 謂於所得所觸所證.) 無(增上慢…)’⁸¹⁾으로 각각 역경하고 있다. 즉, 산스크리트어 문단에 있어서는 “(S.)여임이란, …(있어서 S.)여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문단에 있어서 두 번의 ‘nir-’를 『顯揚論』에서는 주제에서 ‘無(增上慢者)’로, 설명부분에서 ‘離(增上慢)’으로, 그리고 『瑜伽論』에서는 주제에서 ‘離(增上慢)’으로, 설명부분에서 無(增上慢)으로 각각 역경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에 의하면 두 논서에서는 ‘離(增上慢) … 離(增上慢)’으로 주제와 설명부분에서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지만 현장은 두 논서들을 각각 역경하는 과정에서 『顯揚論』에서는 “증상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 증상만을 여임이다.”라고, 『瑜伽論』에서는 “무엇을 증상만 여임이라고 하는가? … 증상만이 없음이다.”라고 표기하였다. 즉, 현장은 두 논서들에서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다르게 ‘離’와 ‘無’를 사용·배치하여 수행자들의 수행과정과 결과(=증득)를 표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 의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0 ‘於’조사에 대한 역경

현장은 『顯揚論』과 『瑜伽論』의 한역본에서 산스크리트어 ‘adhiṣṭhāya’(㉠…la brten nas), ‘antikāt’(㉠…pas) 등을 ‘於’로 역경하였다.⁸²⁾ 그리고 한역의 조사 의미를 갖는 산스크리트어 격변화로 서 주격(Nom., ㉡paritasanā,⁸³⁾ ㉢於怯怖,⁸⁴⁾ ㉣於怯弱⁸⁵⁾, 목적격(Acc., ㉤īryāpatham,⁸⁶⁾ ㉥於威儀,⁸⁷⁾ ㉦於威儀路⁸⁸⁾, 구격(Instr., ㉧pramādena,⁸⁹⁾ ㉨於放逸,⁹⁰⁾ ㉩放逸⁹¹⁾, 종격(Abl., ㉪kukṛtāt,⁹²⁾

77) 최종남(2002), 71 참조.

78) ŚrBh.(Sh.), 272.

79) Tib. P.124a1.

80) 大正藏31, 513下10-11.

81) 大正藏30, 437中18-19.

82) 최종남(2002), 149-150 참조.

83) ŚrBh.(Sh.), 272.

84) 大正藏31, 513下9.

85) 大正藏30, 437中17.

86) ŚrBh.(Sh.), 38.

87) 大正藏31, 512上13.

88) 大正藏30, 402中3.

㉔於惡作,⁹³⁾ ㉕於[其]惡作⁹⁴⁾, 속격(Gen., ㉖vijñānām sabrahmacāriṇām,⁹⁵⁾ ㉗於諸聰慧同梵行者,⁹⁶⁾ ㉘於諸有智同梵行者⁹⁷⁾, 처격(Loc., ㉙athāsamātteṣu śikṣāpadeṣu,⁹⁸⁾ ㉚於所受學處,⁹⁹⁾ ㉛於所受學所有學處¹⁰⁰⁾들을 또한 한역본에서는 의미에 맞게 ‘於’로 각각 역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산스크리트어 불변화분사(Indecl. pt.) ‘upādāya’¹⁰¹⁾(㉜…la brten nas¹⁰²⁾)를 『瑜伽論』에서는 ‘由(過去世…)’¹⁰³⁾로 대부분 역경하고 있지만 『顯揚論』에서는 예외적으로 ‘於(過去世…)’¹⁰⁴⁾조사로 역경하고 있다.

2.11 ‘爲’에 대한 역경

현장은 『顯揚論』과 『瑜伽論』에서 산스크리트어 명사의 격변화들 중에서 목적격(Acc., ㉝dharmam (㉞…la)과 여격(Dat., ㉟prāptaye(㊱…(ky)i phyir)을 대부분 ‘爲’조사로 역경하였다. 그리고 동사를 대신해서 술어적 명사로서 주격(Nom., tucchāḥ(㊲…yin (pa))을 또한 ‘爲’로 역경하고 있다.¹⁰⁵⁾

이 외에도 여격(Dat., ㊳caṅkramasthānaduḥkḥapratighātāya,¹⁰⁶⁾ ㊴’chags pa dai/ sdod pa’i sdug bsñal sel ba ni…yin no¹⁰⁷⁾)을 『顯揚論』에서는 ‘爲(大治行住疲苦)’¹⁰⁸⁾로, 그러나 『瑜伽論』의 여러 부분에서는 ‘能(大治經行住苦)’¹⁰⁹⁾으로 역경하고 있다.

또한 『顯揚論』과 『瑜伽論』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은 산스크리트어 명사 ‘(kukṛtāc ca) kṛtāt (pratyudāvarttate/’¹¹⁰⁾(n.Sg.Abl.)를 『顯揚論』에서는 ‘(若於惡作)爲(之則應捨離)’¹¹¹⁾ 『瑜伽論』

89) ŚrBh.(Sh.), 47.

90) 大正藏31, 515下14.

91) 大正藏30, 404上1.

92) ŚrBh.(Sh.), 272.

93) 大正藏31, 513下3.

94) 大正藏30, 437中11.

95) ŚrBh.(Sh.), 39.

96) 大正藏31, 512中4.

97) 大正藏30, 402下3.

98) ŚrBh.(Sh.), 37.

99) 大正藏31, 512上7.

100) 大正藏30, 402上25.

101) ŚrBh.(Sh.), 46.

102) Tib. P.22b7-8.

103) 大正藏30, 403下20.

104) 大正藏31, 515下7.

105) 최중남(2002), 138-139 참조.

106) ŚrBh.(Sh.), 442.

107) Tib. P.200a7-8.

108) 大正藏31, 514下23.

109) 大正藏30, 466中2.

110) ŚrBh.(Sh.), 272, 티벳어 역경본에는 상응한 문장이 없음.

에서는 ‘(於其惡作)作(而棄捨)’¹¹²⁾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부사 ‘…ity (ucyate),¹¹³⁾ ①(…’zes (bya’o)¹¹⁴⁾를 『顯揚論』에서는 동사 ‘(說)爲…’,¹¹⁵⁾로, 『瑜伽論』에서는 동사 ‘(說…)名…’¹¹⁶⁾으로 각각 문장의 구성과 의미에 맞게 역경하고 있다.

3. 나가는 말

현장은 인도에서 17년 동안의 구법을 마치고 645년 1월 7일에 長安에 도착한 후 태종의 칙명에 의해 3월 1일 翻經院을 개원하고, 5월 2일부터 홍복사를 비롯하여 약 10여 곳의 사찰에서 644년 1월 1일까지 20여 년 간 75부 1335권을 역경하였다.

현장이 역경한 불전들은 부파불전들과 대승의 화엄·중관·유식·인명·밀교·정토 등의 다양한 시대별·학과별·사상별의 불전들을 역경하였다. 이들 역경불전 중에서 초기에 역경한, 즉 645년 5월부터 649년 6월까지 역경한 불전들은 75부 1335권 중에서 18부 193권이다. 이들은 18부 193권 중에서 87%인 11부 168권으로서 유가행과의 초기문헌들이며, 유가행과를 대표하는 문헌들인 『顯揚論頌』, 『顯揚論』,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大乘五蘊論』, 『攝大乘論釋』, 『瑜伽論』, 『解深密經』, 『唯識三十論頌』, 『大乘百法明門論』, 『攝大乘論釋』, 『攝大乘論本』(역경순)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의 역풍을 고찰하고자 초기의 역경불전들인 11부 168권 중에서 『顯揚論』과 『瑜伽論』을 문헌학적으로 대조·분석하였다. 『顯揚論』은 『瑜伽論』의 5分17地로 구성된 100권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문장과 내용의 변화 없이 재조직하여 11품·20권으로 구성된 논서이다. 두 논서는 동일인인 현장이 645년에 『顯揚論』을, 그리고 646년에 『瑜伽論』을 각각 역경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顯揚論』의 20권 중에서 권7과 권7의 내용과 상응한 부분인 『瑜伽論』 5地 중의 <聲聞地>를 중심으로 현장이 645년과 646년에 시기적으로 어떠한 역경방법(譯風)으로 각각 역경을 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聲聞地>의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벳어 역경본들을 참조하였다.

현장은 『顯揚論』의 역경과정에서 구역의 음사표기, 구역의 빨리어 음사표기, 그리고 구역의 의역 용어들을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瑜伽論』의 역경과정에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음사표기를 의역용어로, 빨리어 음사표기를 산스크리트어 음사표기로, 전체가 음사표기인 것을 음사표기와 의역을 함께한 합역으로, 구역용어를 신역용어로, 그리고 한자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 때문에

111) 大正藏31, 513下4.

112) 大正藏30, 437中12.

113) ŚrBh.(Sh.), 44.

114) Tib. P.22a2.

115) 大正藏31, 513上12.

116) 大正藏30, 403中24.

곡해할 것을 우려하여 음사표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두 논서에서 새롭게 사용한 신역 음사표기, 의역용어, 빨리어 음사표기들만을 사용하여 역경하지 않고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구역용어가 일반화 되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역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을 병행하면서 역경을 하였다.

현장은 『顯揚論』의 여러 부분에서 문장의 구조변화와 문장을 생략하여 역경을 하였다. 그러나 『瑜伽論』은 산스크리트어 원전 및 티벳어 역경본과 대조하면 原義와 일치하고,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접속사와 숫자를 들어 설명을 전개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서두에 전체적인 숫자와 함께 설명을 이끄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장은 부정어 ‘於’조사, ‘爲’의 조사·동사들에 대한 역경에 있어서도 『顯揚論』과는 달리 『瑜伽論』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質 중심의 역경을 하였다.

이에 현장이 645년에 역경한 『顯揚論』은 646년에 역경한 『瑜伽論』과 대조하면 신역의 음사표기, 의역용어, 즉 구역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역경의 유형을 찾을 수 있어 試譯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646년부터는 현장의 역경이 정착되어 현장의 역풍으로 자리 잡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이 20년간 역경한 75부 1335권 중에서 역경초기의 두 논서들만을 중심으로 일부의 권을 참조하여 문헌학적으로 대조·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후속연구로서 현장의 역풍과 함께 다양한 사상적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약 호

㉠.	『Hsien-yang shêng-chiao lun』(『顯揚聖教論』, 한역본).
P.	Peking(北京本), No.5337(第110卷).
㉡.	Sanskrit.
ŚrBh.(Sh).	Karuneshu Shukla (ed.). 1973. Śrāvakahūmi.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	Tibet(티벳어 역경본).
T.	Taishō(大正藏本)
Tib.	Tibet.
㉣.	『Yogācārahūmi』(『瑜伽師地論』, 한역본).

<참고문헌>

金岡照光. 『佛敎漢文の讀み方』. 東京: 春秋社, 1978.
 鎌田茂雄. 『中國佛敎史』. 東京: 岩波全書, 1979.
 鎌田茂雄. 『中國佛敎史』 第1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水野弘元 著, 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1996.
 師茂樹. 『大乘五蘊論』. 東京: 春秋社, 2015.

- 船山澈. “佛典漢譯史要略.” 『佛教の東伝と受容』卷6. 東京: 佼成出版社, 2010.
- 桑山正進·袴谷 憲昭 共著. 『玄奘』. 東京: 大藏出版, 1981.
- 이재창. 『불교경전의 이해』. 서울: 경학사, 1998.
- 최종남. “『顯揚聖教論』에 대한 再考察.” 『인도철학』 제3집(1993. 4). 205-224.
- 최종남. “『顯揚聖教論』品構造에 대해서.” 『인도철학』 제9집(1999. 12). 235-252.
- 최종남. 『梵藏漢對照 顯揚聖教論索引』. 서울: 韓國傳統佛敎研究院, 2002.
- 최종남. 『역경학개론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9.
- 최종남 외. 『범본·한역본·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서울: 경서원, 2009.
- 최종남 외. 『역경학개론』. 서울: 운주사, 2011.
- Choi, Jong-Nam. 2001. *Die dreifache Schulung (śikṣā) im frühen Yogācāra*.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ong-Nam. 1993. “A Reconsideration on the Āryadeśanāvikhyaṇaśāstra.” *Korean Society of Indian Philosophy*, 3: 205-224.
- Choi, Jong-Nam. 1999. “On the Chapter Construction of the Āryadeśanāvikhyaṇaśāstra.” *Korean Society of Indian Philosophy*, 9: 235-252.
- Choi, Jong-Nam. 2002. *Sanskrit-tibetisch-chinesisch, Der Index zum Hsien-yang shêng-chiao lun*. Seoul: Institut für den traditionellen koreanischen Buddhismus.
- Choi, Jong-Nam. 2019. *The Study of Scripture Translation*. Gimpo: Joong-Ang Sangha University Press.
- Choi, Jong-Nam et al. 2009. *Korean translation of the Sukhāvativyūha*. Seoul: Gyeongseowon.
- Choi, Jong-Nam et al. 2011. *The Study of Scripture Translation*. Seoul: Unjusa.
- Funayama Toru. 2010. *Making Sutras into Classics: How Buddhist Scripture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Tokyo: Iwanami Publishing Co.
- Kamata Shigeo. 1979. *History of Buddhism in China*. Tokyo: Iwanami Publishing Co.
- Kamata Shigeo. 1982. *History of Buddhism in China Vol. 1*. Tokyo: Tokyo University Press.
- Kaneoka Shogo · Trans. Lee Mi-Ryeong. 1987. *A way of composing Chinese writings*. Tokyo: shunjusha.
- Karuneshu Shukla (ed.). 1973. *Śrāvakaśāstra*.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 Kuwayama Shoshin, & Hakamaya Noriaki. 1981. *Hyeon Jang*. Tokyo: Daizoshuppan.

- Lee, Jae-Chang. 1998. *Understanding of Buddhist Scriptures*. Seoul: Gyeonghaksa.
- Mizuno Goken. 1996.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utra*. Seoul: Sigongsa.
- Moro Shikeki. 2015. *Pañcaskandhaka*. Tokyo: Shunjusha.

